

제 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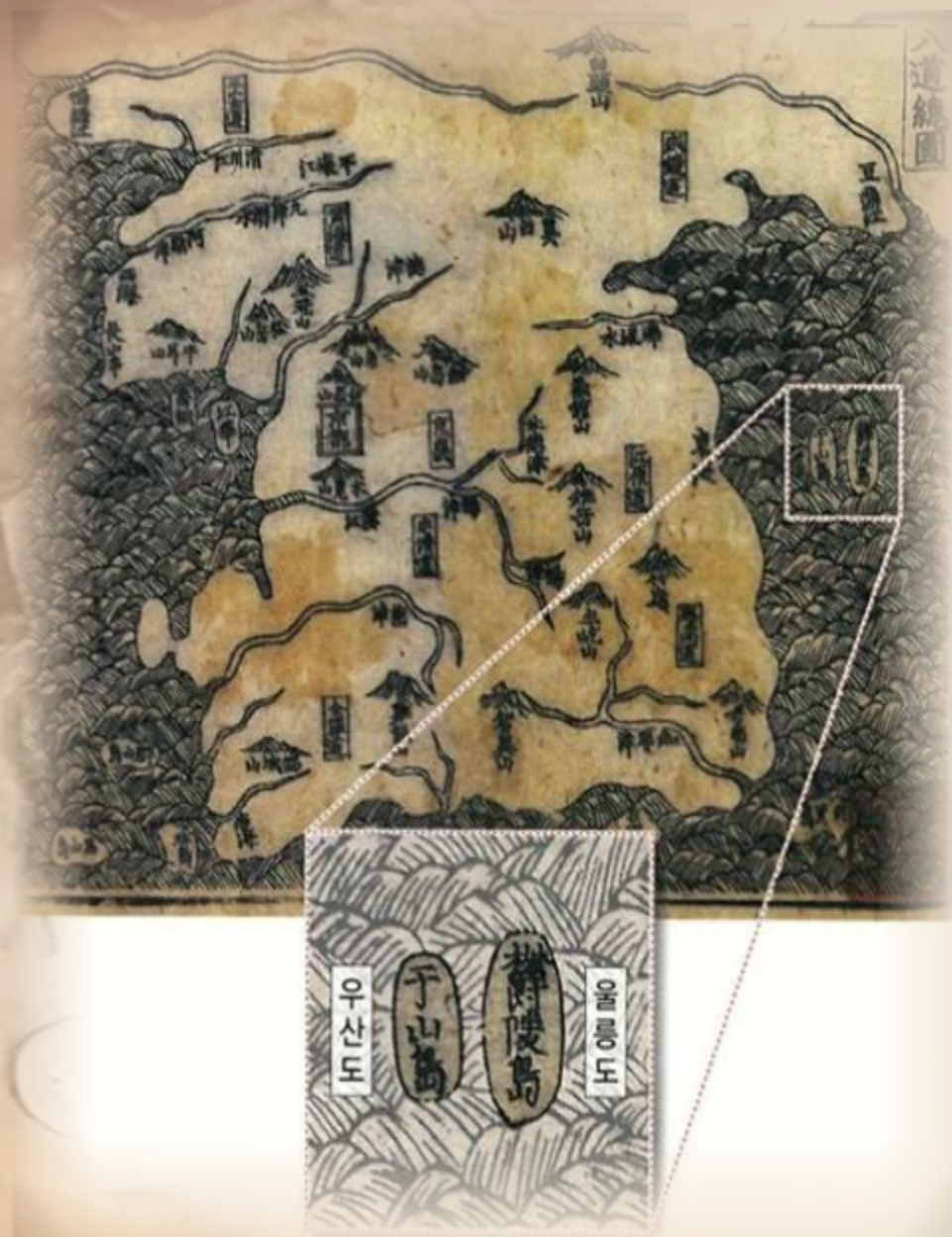


독도는 우리땅-역사와 분쟁 이야기

지켜낸 이름, 독도. 역사 속 진실을 말한다.

기록 속에 살아온 섬, 독도

"독도는 기록 속에 존재해온 우리 땅"



『팔도총도』에 나타난 울릉도와 우산도

독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해 왔습니다.
독도는 수백 년 전부터 문헌과 지리서 속에 명확히 존재해온 섬입니다.

고대 역사서인 삼국사기를 비롯해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같은 조선 시대 문헌에는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꾸준히 등장합니다.

특히 1454년 간행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도와 무릉도는 모두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다"는 문장이 실려 있어,
그 시기에도 독도가 분명한 우리 영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옛 지도들을 살펴보면, 울릉도 옆에 작게 그려진 독도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수많은 문헌과 지도는 우리가 독도를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독도는 역사의 기록 안에서, 이미 분명한 우리 땅이었습니다.

기록 속에 살아온 섬, 독도

"울릉도와 독도, 조선의 손길이 닿다"



조선시대 독도 지킴이 '수토사' 뱃길 재현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 결정 (1694년)

17세기 후반, 울릉도와 독도에 일본 어부들이 무단으로 출입하면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조선 정부는 1694년, 울릉도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울릉도 수토(搜討)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 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수토관으로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조선의 영토 주권을 행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토: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해서 조사하거나 살핌.

*관원: 관청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보는 사람.

일본도 인정한 독도 - "돗토리번 답변서"

1696년, 돗토리번 답변서



돗토리번 답변서 (복제본)

일본 돗토리번 답변서

에도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돗토리번에 물어보았을 때, 돗토리번은 이렇게 명확히 답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돗토리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두 섬이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스스로 인정한 공식 문서이며, 그 시점에서 이미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돗토리번 답변서는 일본 정부 내부에서 작성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입니다.

이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인정한 독도 -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 (1696년)

1690년대,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 근처에서 조선 어민들과 충돌하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외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696년, 에도 막부는 이런 갈등을 정리하며 일본 어민들에게 다케시마(독도)와 울릉도에 건너가지 말라는 '도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고, 일본인의 출입을 금지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또한, 이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은 현재에도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가장 명확한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
(복제본)

자료제공 : 독도박물관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

일본 최고 기관이 남긴 진실 - "태정관 지령"



태정관 지령

태정관 지령 (1877년)

이 태정관 지령 문서는 일본 스스로 독도·울릉도가 자기 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최초이자 공식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77년, 일본 내무성이 일본 정부 최고 기관인 태정관에 질문했습니다.
"울릉도(다케시마)와 독도(마쓰시마)를 일본 지도에 넣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 태정관은 다음과 같이 공식 지시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으니, 앞으로도 일본 영토로 관련 짓지 말 것."

태정관의 이 결정은 공식 문서(태정관 지령문)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조선 국에 관계된 것"이라는 말까지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대한제국과 안용복의 외침

독도가 역사 속에서 실질적인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주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안용복입니다.

그는 조선 시대 어부이자 애국 인물로, 일본 어부들의 불법 어로 행위에 맞서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기록으로 남아 조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1900년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그 부속 도서인 독도를 명확히 행정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근대 국가 체계 속에서도 독도를 명백히 자국 영토로 관리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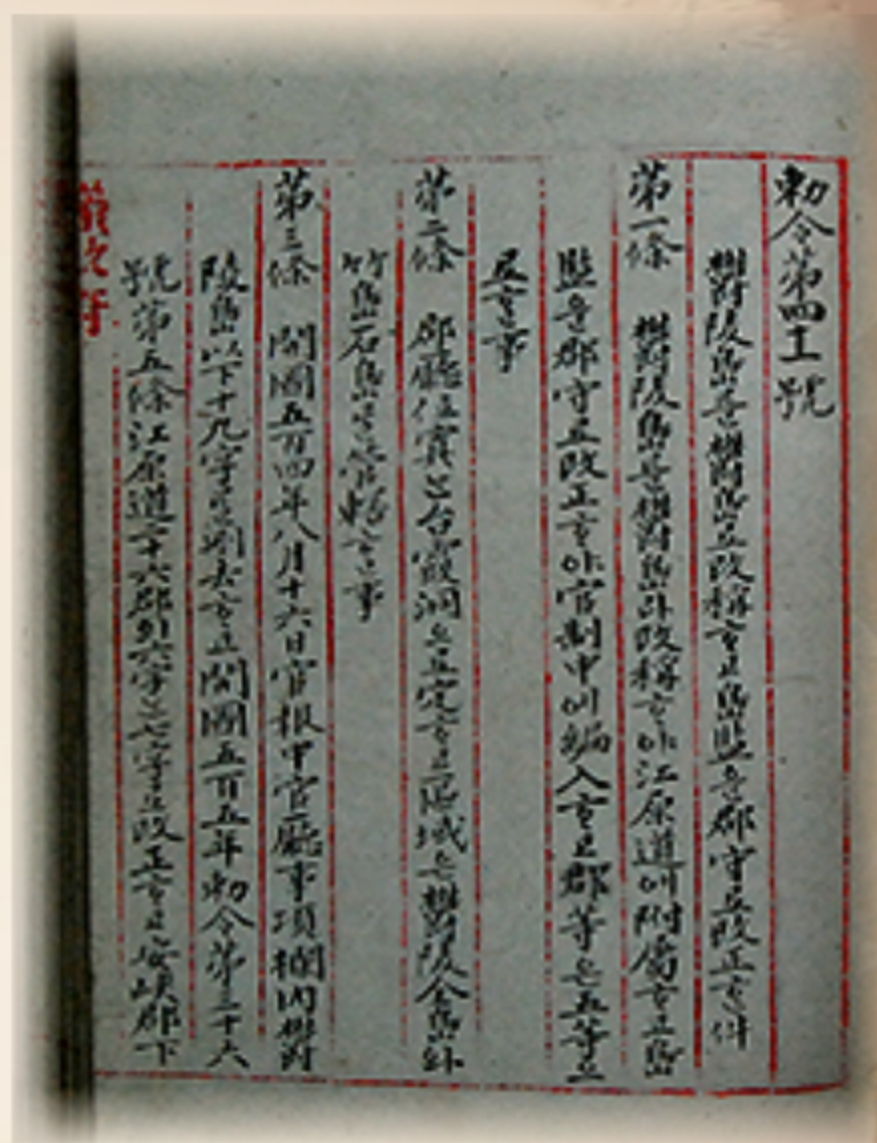
이처럼, 국가의 법과 개인의 용기, 모두가 독도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노력의 증거입니다.

출처: 네이버 이미지, 대한민국외교부 독도

“지키려 했던 사람들, 증명된 주권”



안용복 동상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